



인사말을 하고 있는 조봉성 전주매일 대표(사진 왼쪽)과 사회를 맡은 국민MC 서정욱씨.

가을의 시작, 통기타의 추억 속으로

제10회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 성료... 백영주 · 박영일 · 김민영 · 이태원 · 헤미 등 무대 위에

한국의 1970~80년대를 풍미했던 포크송. 그 시절의 낭만이 전주한옥마을에 재현됐다. 지난 4일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앞 특설무대에서 '제10회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가 성황리에 열렸다. 올해 10회를 맞이한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는 (사)전북문화진흥원과 전주매일신문사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후원했다. 국민MC 서정욱씨와 가수 헤미씨의 사회로 백영주씨, 박영일씨, 김민영씨, 이태원씨 등이 무대 위에 올라 많은 관객들과 시민들에게 추억과 낭만을 선사해줬다. 서정욱씨와 함께 사회를 맡았던 헤미씨도

통기타를 들고 무대위에 올랐다. 조봉성 전주매일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매년 열리고 있는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에 많이 와주셔서 고맙다"며 "오늘 이자리에서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사진=이만호 기자 · 양은경 기자

산악사진작가가 전하는 '덕유산 겨울의 속삭임'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칠연미술관서
25일까지 '이운승 산악사진 전시회'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칠연미술관 입주 작가 전시회가 호응을 얻고 있다. 9월 25일까지는 '이운승 작가의 산악사진 전시회, '덕유산 겨울의 속삭임'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작가가 겨울로 뒤덮인 덕유산에 오르며 마주했던 순간들과 만날 수 있다. 전시 작품은 총 30여 점으로 덕유산의 눈 덮인 능선과 눈꽃이 만발한 숲 사이로 새겨진 작가의 시선과 감성, 시간의 결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운승 작가는 "덕유산의 겨울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마음을 감싸는 따뜻한 위로"라며 "덕유산 겨울의 속삭임을 들으시며 더위를 잊어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前) 연합뉴스 전북취재본부장을 지낸 이운승 작가는 (사)한국산악사진가협회 5~6대 이사장을 지냈으며 현재 무주군 관광협의회장, 무주군사진가협회장,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2009~2024년까지 지리산, 설악산, 덕유산, 월악산, 주왕산, 속리산 등지에서 개최된 산악그룹전 등에 30여 차례 함께했으며, 무주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이운승 작가의 산악사진 전시회가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칠연미술관에서 열린다.

기원 전시회에도 참여했다. 한편,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칠연미술관 입주 작가 전시회는 오는 2026년 3월까지 개최되며, △나운재 작가의 조형도에전 '빛을 품은 기둥'이 8월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으며 △

안영옥 작가의 린넨 인형 전시회는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선환두 작가의 '옛보기' 한국화 전시회는 11월 7일부터 30일까지, 그리고 칠연연합전(입주 작가 연합전)은 12월 5일부터 이어질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K-북, 북미 출판시장 두드린다

출판진흥원, 찾아가는 뉴욕도서전

한국 출판계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북미 출판시장 진출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미국 뉴욕의 엔와이시 세미나앤콘퍼런스 센터에서 '찾아가는 뉴욕도서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문학동네, 창비, 다산북스, 웅진씽크빅 등 국내 대표 출판사를 포함해 총 15개 출판사가 직접 참가했다. 또한 비씨에이전시가 100종의 위탁 도서를 맡아 소개하면서, 현지 출판 바이어들과의 상담 기회를 확대했다. 미국 측에서는 펄컨랜덤하우스(Penguin Random House), 하퍼콜린스(HarperCollins), 사이먼슈스터(Simon & Schuster) 등 세계 5대 출판그룹 중 3곳이 직접 참석했다. 여기에 트라이던트 미디어그룹, 와일리 에이전시 같은 글로벌 문화 전문 에이전시, 디지털·오디오 콘텐츠 기업 오버드라이브와 레코디스 북스까지 가세해 상담장은 열기로 가득 찼다. 특히 최근 미국 출판계에서 웹툰, 웹소설, 오디오북 등 멀티 콘텐츠화된 IP(지식재산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 출판물이 지닌 독창적인 스토리와 문화적 매력이 주목을 받았다. 출판진흥원은 이를 단순한 판권 수출

을 넘어 드라마·영화·게임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원천 IP 수출' 기회로 보고 있다. 북미 출판시장에서 케이·북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성과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김혜순 시인의 '날개환상동'이 한국 최초로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NBCO) 시 부문 수상하며 한국 시문학의 세계적 위상을 알렸다. 이어 올해 차호운 작가의 그림책 '용을 찾아서'가 한국인 최초로 미국 아동 문학계 최고 권위인 칼데콧 명예상에 선정됐다. 웹소설 원작도 성과를 내고 있다. 김수지 작가의 로맨스 판타지 '상수리나무 아래'는 미국에서 종이책으로 출간되자마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하드커버 소설 부문 7위에 올랐다. 또한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는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1세기 100대 도서'에서 15위에 오르며 케이·북의 저력을 입증했다. 출판진흥원 관계자는 "미국 시장은 철저히 검증된 작품만 받아들이는 대신, 성공 시 글로벌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이번 뉴욕 상담회가 국내 출판사의 북미 진출은 물론, K-콘텐츠의 지식재산 수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판진흥원은 이번 상담회를 계기로 북미 시장 내 한국 도서 수출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전주역사박물관, 찾아가는
사회포용 박물관 운영

전주역사박물관은 박물관 외부로 직접 찾아가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사회포용 박물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찾아가는 사회포용 박물관은 장애와 국적, 계층, 성별 등 차별 없는 문화·교육 기회균등을 목적으로 복지센터와 보호기관, 원터 등 다양한 기관으로 직접 찾아가 이동의 불편감을 해소하고, 참여자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첫 번째로 찾은 기관은 성년 지체 장애인으로 구성된 보호기관 한국장애인부모회 전북지회로, 오는 11일과 18일 도예 실습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은 '유물쭈물 흠뻑'을 주제로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백자 유물을 관찰해 선조의 생활상을 알아보고, 스스로의 생활상에 맞춘 나만의 그릇을 빚어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전주에서 발견된 다양한 백자 유물을 관찰하고 흙을 조형하는 과정에서 근육의 감각 발달과 심리적 안정감 및 긴장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자신의 작품을 완성함으로써 성취감과 자기 고요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1부 '강패와 장구' (20)

부탁드려요.

- 오 상 근 -

연행자들 모두가 앞에 서서 인사를 하는데 객석에 있던 관객이 하나둘 꽃다발을 들고 나가 치배와 잡색들에게 건넸었다. 꽃다발을 가져와 이명주에게 건넸어야 했나 하는 뒤늦은 어딘가가 간질간질한 어쭙잖은 생각이 들었고 동식은 얼굴이 벌게졌다. 공연을 보러 오라했던 말을 들었으니 꽃다발은 없지만 인사라도 건네야겠다는 지극히 평범한 범인의 생각마저도 어울리지 않는 웃을 입은 것처럼 동식은 어색했다. 동식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그런 동식을 무대에 서 있던 이명주가 먼저 알아냈다. 짧게 깎은 머리와 우람한 등 치에 하얀 추리닝을 입고 팔자걸음으로 서 있는 남자가 평범한 일반인은 아니었으니까.

'오셨어요.' 동식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이명주의 입모양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숙스러워서 동식도 고개를 숙여 목례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 다음날 봉사활동 때문에 아침 일찍 호암마을로 아우더를 몰았다. 가는 도중 이명주로부터 전화가 왔다. 어제 공연 잘 봤다는 인사말로 운을 떼었다. 말주변도 없고 건달로 살아오다보니 투박하고 거친 말만 써버트해서 잘 봤다는 말 말고는 더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공연 내내 어떤 울림 같은 걸 느끼면서 가슴에서 북받치는 감정 때문에 울컥 눈물을 쏟으려 했을 만큼 감동 깊었다. 그 감동을 동식은 조리 있게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강동식 씨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우리가 숙소동을 짓게 되었어요.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해서 군청의 도움을 받아 짓게 되었는데, 이 숙소동이 지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농악을 배울 수 있을 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고창 농악을 알릴 수 있을 거예요.' 이명주의 설명을 들으면서 동식은 운전대 신경을 집중할 수가 없었다. 얼굴이 뜨거워지면서 부끄러웠다. 이명주는 동식이 숙소동 짓는 공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듯 했다. 청풍에서 이미 다른 건설회사에 고창 건달 강동식이 도와주고 있으니 농악전수관 공사에 손을 떼라고 으름장을 놓았을지도 모른다. 다른 건설회사에서는 이걸 이명주에게 알렸을 것이고.



'숙소동 공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려요.' 공사에 참여하려는 다른 건설 회사들을 협박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일 것이다. 왜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따져 되물어야 한다. 동식은 건달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지 않고 동식에게 직접 인간적으로 부탁을 하는 이명주가 보통내기 여자가 아님을 동식은 느꼈다. 강패인 동식을 처리하는 단순한 방법은 공권력을 이용하는 방법이 최상이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다. 이명주는 그 단순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다른 방식을 썼는데 어쨌든 이명주는 동식을 강패로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대접해주고 있었다. 그만큼 이명주가 그릇이 큰 건가. 고창 농악을 책임지는 막중한 무게를 지탱할 정도의 힘을 지닌 여자다. 처음 대면에서 느꼈던 것처럼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그녀에게 존재함이 분명했다. 호암마을에서는 어제와 같은 일을 하려는 모양이었다. 동식은 오늘은 마음먹고 노동으로 땀을 흘려보려고 하얀 나이키 추리닝의 건달 복장이 아닌 허름한 작업복의 일꾼 복장으로 왔다. 보호관찰소 직원이 동식의 차림새를 보고는 어제보다 더 활짝 핀 얼굴로 동식을 맞이했다.